

# 왜! 건축사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 Why should architects be united?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있다.

지금 이 시대의 회원들의 결정이 건축사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고 건축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것이다. 물론 당장 무엇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지금 우리의 마당을 하나로 크게 만들어 놓으면 후배들은 힘차게 그 마당에 모여 큰 힘으로 건축을 노래할 것이다. 하나가 된 뜻과 하나로 뭉친 힘의 위력은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은 가속도를 내기위해 발진만 할 뿐이다. 역사의 전환기에 건축사 선배들은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마음껏 뛰 놀 수 있는 마당을 넓혀놓았다고 얘기하자.

역사는 예측하기 어렵다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진실을 배우고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룬 신라의 삼국통일은 만주벌판을 합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금은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었지만 1000년 동안 고려와 조선의 한반도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불과 800년 전 일이지만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던 테무진이 작은 부족장으로 만족하고 아무 뜻이 없었다면 근 200년간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일한 최강, 최대의 몽고제국과 칭기즈 칸은 없었을 것이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전략하여 인구 300만도 안 되는 빈국이 되어 있지만 몽고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위대하다 할 것이다.

중국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BC221) 진시황은 중국역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으나 통일에 이은 내치에 실패함으로써 불과 15년 만에 와해되어버렸다. 다시 항우와 유방의 숙명적인 대결 끝에 한나라로 통일되어 전후 400년 한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통일 자체보다 통일 후의 성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사회전체가 통합의 시대인 것 같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통합추진을 선언하고 있고 KT와 KTF가 합병하듯이 M&A를 통해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려하고 있다.

정부조직도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시키고 있는데 이미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고 지금은 해양 분야까지 통합되어 국토해양부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전문단체는 그동안 경쟁적으로 분화발전의 과정을 거쳐 왔다. 건축학회도 각 전문위원회들이 확대 발전되어 소학회들이 속속 창립되었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건축학회라는 큰 조지를 전제로 하여 효율적인 분화활동이라 생각할 수 있다.

건축장작실무단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조직인 UIA와 미국조직인 AIA, 유럽조직인 ACE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토해양부 등록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인 '한국건축가협회'로 양분되어 활동해 왔다. 게다가 근 10년 전에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분화된 '새건축사협의회'까지 삼분되어 버렸으니 그 회원의 주축을 이루는 건축사들의 목소리는 분열 될 수밖에 없고 힘은 오히려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저마다 정통성과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유사활동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정부나 국민들에게 통일된 이미지 전달이 어렵고 국제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였다. 우리 건축사협회는 전국조직을 갖고 있고 최다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계의 지분이 1/3 내지 1/10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



최영집 / Choi, Young-jeep, KIRA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장, 사업위원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회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현 (주)중합건축사사무소 탐 대표
- 국가보훈처 심의위원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

**미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역사는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분열과 통합,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밀려오는 파도를 타자!**

있고 점점 더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건축사단체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3년 전부터 단체통합추진을 선언하고 협의해 왔으며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안에 통합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마지막 일정에 와 있다. 이 시점에서 통합의 대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1. 우리의 후배들은 이미 UTA 권고규정에 맞추어 2002년부터 5년제 건축학과로 입학하여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곧 새 자격시험기준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통일된 마당과 일원화 된 가치를 제공해야 할 사명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지 않을까?
2. 국제적으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전문가자격자로서 국가 간의 협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바, 한 나라에서 두세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 않은가.
3. 건축사 관련법과 제도가 시시각각 도전을 받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집단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정의 구현과 전문양성의 차원에서 건축계의 진정성이 전달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합일된 힘과 목소리로 호소한다 해도 도전세력과 대적하기 벅찬 데 삼분오열되어서야 될 것인가.
4. 건축문화시대의 주역으로서 건축사의 중요 이미지와 가치를 일원화하여 정부와 사회에 전달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때 더 이상 통합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는가.
5. 건축창작 실무단체로서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과 자격시험과정을 거쳐 취득한 건축사자격을 올바른 사회인식을 위해 일원화 된 활동을 해야 하며 건축사 위상을 재정립하여 고양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6. 법정단체로서 안주해오던 타성에서 벗어나 기존 건축사협회의 약점을 일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며 혁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므로 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아 정부차원의 업무를 전문가답게 위임받을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면을 전환시켜야지 무조건 울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새 건축사법에 건축사등록원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이대로 구경만 하다가는 협회의 존재의미나 존속기반이 무너질 것이 아닌가. 돌파구를 찾아 신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7. 실력 있는 사람보다 실력 있게 보이는 사람이 큰일을 한다고 한다. 우리 협회도 변화의 주역이 되어 능력 있게 보이도록 신뢰감이 넘치도록 신장개업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자.

건축사들의 교회가 있다고 치자. 선배들이 온갖 고생을 다하여 성전을 건립하였는데 새 교인들이 물 밑 듯이 들어와 교세가 번성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기득권을 주장하며 진입을 방해하고 배척하여 교세확장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몰락하고 말 것이고 초기 기여도가 큰 선배들은 그 옹졸함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지탄받을 것이다.

오로지 미래만 생각하자.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또 건축이 관련되는 어느 부처라도 당당하게 건축을 위해 주장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건축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마당 신천지를 만들어 보자. 우리는 시작만 할 뿐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몫은 후배들이 할 일이다. 무엇이 건축과 건축사를 위하는 길인가 잘 생각하고 역사의 증인이 되자.

지난 집행부에서 2년간 단체협상을 하느라 공식, 비공식 합쳐 100여 차례나 만나 합의를 이루어냈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생 끝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올해 2월 25일 정기총회 시 통합정관이 가결되었으니 통합문제는 이미 승인이 되고 결의된 것이다. 전 회원의 뜻이 그렇게 모아진 것으로 공식화해야 할 일이다. 통합이행규정도 그런 대의를 존중하여 지난 3월 이사회 때 전 집행부가 합의해 놓은 내용 그대로 가결하였다.

그 후 굳이 바뀐 것이 있다면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지원받고 활동해오던 건축의 영역을 통합협회가 계승하기 위하여 정관1조에 문화예술 진흥법을 언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처장관으로 수정하여 포괄적이며 융통성을 갖게 수정한 것만 달라졌고 일정을 좀 늦출 수밖에 없어 조정하는 일만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동안 회원합의절차가 없었다느니 총회가결내용과 달라졌으니 무효 또는 실효가 되었다느니 또 이행규정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결의된 통합정신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일부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협회 근 5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요한 시기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 나무만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거나 시기를 놓치는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 온 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협회가 그런 목적으로 양부처 또는 다부처 등록을 국내최초로 실현시키고 8,000명 단체에서 12,000명 정도의 건축사 회원을 보유하는 명실상부한 건축사들의 단체가 될 때 그동안 어느 단체에서 주로 활동했느냐가 무슨 큰 의미를 갖는가. 건축사가 주역인데 건축사에게 해로운 일을 벌이겠는가. 건축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건축관련 교수나 비건축사인 전문가를 일부 회원으로 영입한다고 해서 건축사의 정체성이 사라지겠는가.

가문이 훌륭하고 가세가 번성해야 힘이 된다. 보다 큰 도량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협회는 회원에 의해 활동하는 전문가단체이다. 역사발전, 건축발전, 건축사발전을 위해 협회의 새 장을 열었다는 자긍심을 갖고 가자. 그래서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존경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실력이 아무리 좋고 시험을 아무리 잘 보아도 마감 시간에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왜 그리 통합일정을 서두르느냐고 한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6월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연내로 이루고자하는 것이고 회원합의를 위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순회간담회, 순회공청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면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라는 배의 선장으로 회장에 선출되었으면 협회를 위해 멀리보고 높이 보고 항로를 개척하고 지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회장을 시키는 것이다.

회장의 판단은 그 변화를 통한 발전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양부처 장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직간접적으로 격려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전환기에 사소한 것을 빌미로 하여 대세를 그르친다면 그 잘못으로 인해 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회장은 회원의 뜻이 아니라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회장의 뜻은 회원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펼칠 수 있다. 그러나 회장은 높이 날아 멀리 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최선의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여 회원들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고 회원들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건축사와 건축사협회가 거듭나며 살아나야 할 길은 이일부터 성사되어야 가능하다는 시대적 상황이 절실하기에 회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회장이 잘못 판단하는 일이라고 회원들이 부정한다면 회장은 진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선장은 선원의 각 역할을 바탕으로 배를 이끌어 나가지만 선원 모두의 의견을 듣고 배를 운항할 수는 없다. 선장의 전문적 역량을 믿고 선장으로 추대한 것이니까 선장의 역할을 존중해 줄 때 배가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회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 중차대한 결정을 우리 건축사협회가 의연히 주도하여 건축사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지만... ■